문화재 훼손신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문화재 훼손 발견 및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주요사례

벌레로 인한 피해, 금이 가거나 부서짐, 낙서나 오물이 있음, 이끼가 끼거나 썩음, 비나 물이 샘, 곰팡이가 생김, 풀이 많이 자람

신고방법

- 전국대표번호(1661-9112) 및 돌봄사업단 개별 접수처리 병행
-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문화재 훼손 온라인 신고 서비스 활용

신고 접수 처리 절차

신고

- 국민들이 문화재 훼손 발견 및 신고

접수 및 상담

- 전국대표전화(1661-9112), 해당 지역 돌봄사업단 개별신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온라인 신고

조치

- 돌봄사업단 및 시·군·구(시·도) 소관부서 조치
- 돌봄사업 범위 이상의 조치를 요하는 심각한 훼손은 시·도 보고 및 이관처리

결과 관리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돌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모니터링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활동

정기모니터링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잠재적 위협요소나 장애요인 등을 예방함

전문모니터링

전문인력이 비파괴 계측기 등을 이용해 구조변위, 생물피해, 풍화 등 문화재 훼손요인을 과학적으로 예측, 감지, 보고함

긴급모니터링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점검과 긴급대응(복구) 활동을 하기 위해 문화재 및 주변환경 피해를 조사함

일상관리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돌보는 활동

군산 임피향교 대성전(전북 문화재자료 제95호) 부분적 창호도배

창호지는 햇빛과 습기 등의 영향을 받아 변색되고, 관람객의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훼손되기도 합니다. 군산 임피향교 대성전의 경우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창호의 훼손을 발견하였고, 이후 부분적 창호 보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북서부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

문화재에 경미한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활동

안동 전주류씨 백졸암 종가(비지정문화재) 기와보수

안동 전주류씨 백졸암 종가는 비지정문화재로서 전주류씨 백졸암(百拙庵) 류직(柳稷, 1602~1662)의 종가입니다. 할머니인 종부께서 홀로 고택을 지키고 있는데, 외부 화장실 기와가 이격, 파손되어 누수가 생기고 서까래까지 부식된 것을 돌봄사업단에서 모니터링 후 목공, 번와, 미장 등 경미수리를 병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였습니다. [경북북부 문화재돌봄사업단]

파주 황희 선생 영당지(경기도 기념물 제29호) 담장보수

파주 황희 선생 영당지는 경기도 기념물입니다. 2020년 정기모니터링 결과와 파주 시청의 경미보수 요청에 따라 3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 영당지 내 황희 정승 동상 뒤편 약 4M 가량의 붕괴된 담장을 원상복구 하였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경기 문화재돌봄사업단]

양구향교(비지정문화재) 목부재 기름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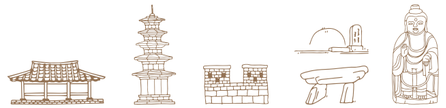
양구향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목부재가 하얗게 노후되어 변색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변색을 막고자 목부재 샌딩작업 및 기름칠 작업을 하여 목재의 결을 살리고 기름 피막을 입혀 습기· 먼지·해충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하였습니다. [강원 문화재돌봄사업단]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선정합니다.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관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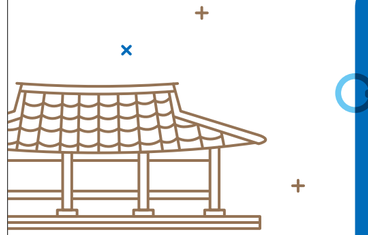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선정기준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를 원칙으로 함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보다 우선하여 선정함
- 국가지정문화재는 모두 돌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 비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시도문화재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도 현황 파악 후 점진적으로 돌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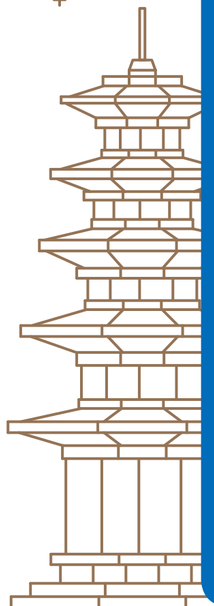
선정절차



문화재 돌봄 사업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개념의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입니다.

함께 이룬 돌봄 10년, 같이 나갈 미래 100년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모니터링

- 육안관찰을 기본으로 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문화재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전문장비를 사용하여 훼손 요인을 과학적으로 예측·감지·보고
- 재난 시 긴급모니터링

주요업무 | 정기 모니터링, 긴급 모니터링, 전문 모니터링

경미수리

- 문화재의 경미한 손상에 대해 신속 복구하여 심각한 훼손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
- 재난 시 긴급보수 및 응급조치

주요업무 | 도배작업, 목부재기름칠, 창호보수, 지붕위이물질 제거, 마루보수, 판문 보수, 목공작업, 석조보수(표면오염물제거), 벽체보수, 기와보수, 기와고르기, 안내판 정비, 안내판 보수, 보호울타리보수, 온돌 보수, 담장보수, 계단·기단·석축 보수, 배수로보수, 이엉잇기, 충진 작업, 지반정비작업, 주변시설물 보수, 기타사항

일상관리

- 문화재의 보존상태 유지를 위한 환경 정비
-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환경 조성
- 문화재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주요업무 | 실내·외 청소, 주변쓰레기청소, 화장실청소, 기존배수로청소, 안내판청소, 덩굴식물제거, 주변경관정비, 주변조경관리, 풀깎이(예초), 풀뽑기(김매기), CCTV점검, 소화기기관리, 제빙·제설작업, 철물방청작업, 부분적 창호도배, 군불때기, 기타사항

사업연혁

2009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6월9일)

2010
-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 시행 (5개 광역시도 시범 실시)
- 문화재 : 691개소

2011
- 8개 광역시도 8개 사업단
- 문화재 : 1,675개소

2012
- 11개 광역시도, 11개 사업단
- 문화재 : 1,675개소

2013
- 문화재돌봄사업 명칭 변경,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통합
- 문화재돌봄사업 전국 확대
- 13개 사업단
- 문화재 : 2,063개소

2014
- 14개 사업단
- 문화재 : 5,518개소 (시도지정 문화재 포함)
- 문화재돌봄지원센터 설립(협회 전신)

2015
- 14개 사업단
- 문화재 : 5,826개소

2016
- 15개 사업단
- 문화재 : 6,008개소
- 경주 9.12 지진피해 복구 참여

2017
- 18개 사업단
- 문화재 : 6,56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포함)
- 자격증 취득 : 수리기능자(64명)
- 문화재돌봄지원사업 시작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사)한국문화재돌봄 협회(명칭 변경)
- 포항 11.15 지진피해 복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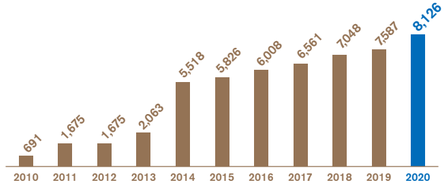
2018
- 21개 사업단
- 문화재 : 7,048개소
- 자격증 취득 : 수리기능자(68명)

2019
- 23개 사업단
- 문화재 : 7,587개소
- 자격증 취득 :수리기능자(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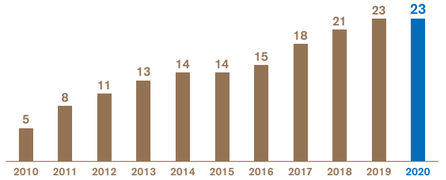
2020
- 23개 사업단
- 문화재 : 8,126개소
- 문화재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 변경(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문화재돌봄지원센터)
- 문화재돌봄사업 법적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 2021년 6월 시행)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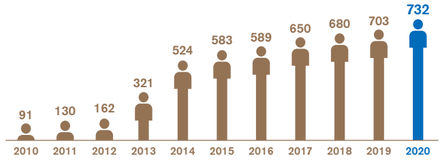
관리대상문화재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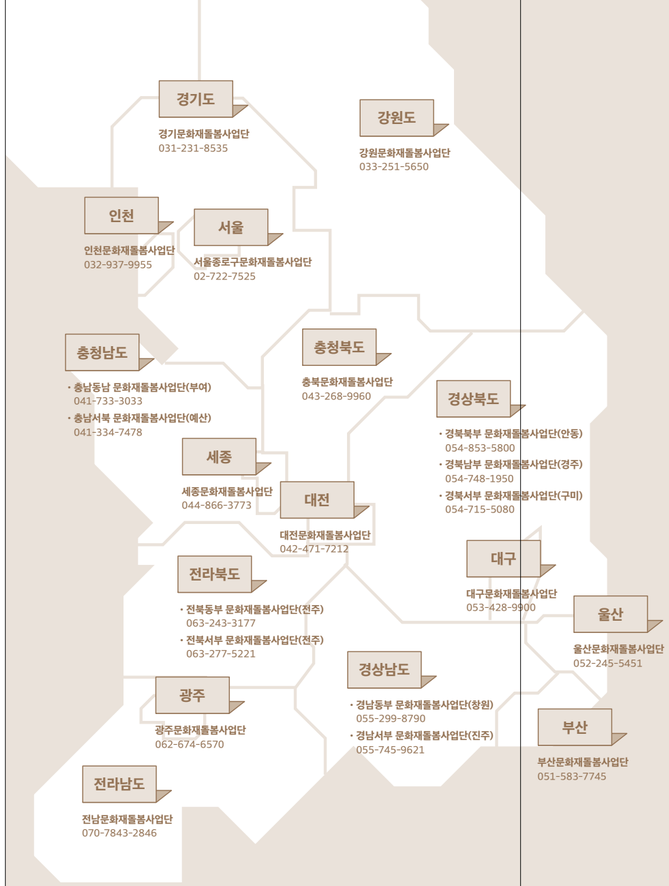


돌봄 수행단체 (단위: 개)



문화재돌봄사업 종사 인원 (단위: 명)





문화재 예방관리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환경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하고, 경미한 훼손에 대해서는 일상관리와 경미수리를 실시하여 문화재가 심각한 훼손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전(事前)적 개념의 문화재 보존 활동입니다.

문화재 돌봄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 상황에 대해 수리를 실시하며 문화재 주변에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복권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https://chdolbom.org